

스포츠 포커스

'프리미어리거' 꿈꾸는 34명 전사들

금호고 축구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한국축대표팀이 12년만에 U-20 월드컵 대회 8강행의 쾌거를 달성한 지난 6일 오후 광주 금호고 운동장.

34명의 금호고 축구부는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을 대비해 막판 전력 재정비에 주력하고 있었다. 비록 새벽에 대표팀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 결과는 알고있던 그들은 몇분 후 태극마크를 단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본 듯 힘차게 불을 쫓아 질주 하고 있었다.

금호고(교장 배원표)의 올 전국체전 목표는 '정상 등극'. 대진 운도 좋아 상위권 진입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우기 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고교축구대회 우승 경력이 있어 올시즌 2관왕을 향한 의욕이 더욱 강해 보인다.

금호고 축구의 특징은 최수용 감독(46)의 합리적인 리더십에 선수들의 자발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기동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기술축구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호고-연세대를 거쳐 국내 프로팀과 일본·캐

태극마크를 달고 신나게 그라운드를 누빈 선배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월드컵 대표 김태영·윤정환·고종수 외에 신연호·김관근·김상호·황영우·이태엽 등이 지금은 은퇴했지만 현역시절 국내 간판급 선수들이었다. 또한 박현범·김홍일·박태민(이상 수원삼성)·기성용(서울FC)·문대성(성남일화)·고창현·신준배(이상 대전FC)·박종진(대구FC)·유현(강원FC)·김승현(전남드래곤즈) 등이 그 뒤를 이어 현재 국가대표 혹은 프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처럼 자랑스런 선배들의 명예를 이어 가기 위해 백성동과 김경중·정석화(이상 MF·3년)는 현재 18세 이하 상비군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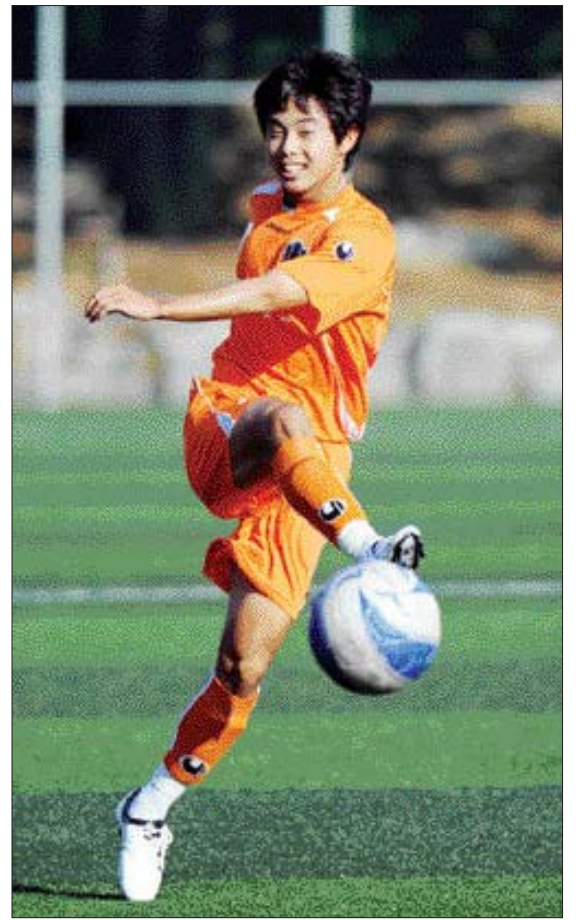
팀 주장 백성동은 볼 컨트롤과 슈팅 감각이 뛰어난 게임메이커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신장 180cm의 김경중은 스피드를 이용한 드리블이 좋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이다. 정석화도 1대1 드리블 능력과 스피드가 탁월해 미드필더로서 제역할을 확실 해 해내고 있다.



백성동



김경중



정석화

전국대회 17번 우승·올 장관기 우승 '최강팀'

김태영·고종수·기성용 등 수많은 스타 배출

전국체전 10여일 앞... 금메달 목표 힘찬 질주

나다 리그까지 경험했던 최 감독은 지난 1995년 금호고축구부를 맡으면서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강압적인 지시보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장·단점을 지적하며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운동장에 찌렁찌렁 울려 퍼지는 감독의 흥분 섞인 불호령은 없었다. 단지 코치들의 짧은 지적만 있을 뿐이었다.

최 감독은 또 선수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선·후배간 엄격한 상관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큰 선수'로 키우기 위한 조치이다.

얼한 명령 보다 따뜻한 조언으로, 기계적 움직임 보다 생각하며 뛰는 말 그대로 한 차원 높은 팀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 감독은 "처음 면담을 시작했을때 선수들이 가정·친구·이성문제 등 개인적인 부분을 말하기 꺼려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면서 "선수들 개인의 심리부터 시작해 운동량·음식량까지도 체크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75년 창단된 금호고축구부는 그간 전국대회에서 17번의 우승 경력을 쌓은 만큼 스타급 선수들도 많이 배출해 왔다.

매일 웨이트트레이닝으로 체력 보강에도 힘 쓰고 있는 이들 세 선수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고, 박지성 선수같이 영국무대에서 뛰어보고 싶다"며 앞날의 포부를 밝혔다.

이들 외에도 강현구(3년)는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최전방 공격수, 김빛누리(1년)와 송오진(이상 DF·3년)은 상대 주 공격수를 핏퐁 뒤흔어내는 '그물수비팀'으로 재물을 다하고 있다.

2학년인 팀의 '허리'들도 든든하다. 안성준·권영호·남기열(이상 DF)이 든든하게 문전을 담당하고, 조진홍·홍태곤·김태욱(이상 MF)은 스피드와 신장을 이용한 공수 연결 역할을 해내고 있다. 김슬기와 김경연(이상 FW)은 슈팅이 좋아 상대의 문전을 위협하는 공격수로 골사냥의 기대주들이다.

지난 여름 하루 7시간씩의 고강도 훈련을 실시했던 이들은 이제 어느팀과 상대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출전해 있다. 그 여세를 몰아 전국체전 정상까지 오르고자 한다.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운 금호고 축구부가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 고교최강의 팀으로 다시 한번 우승 행가례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맨뒷줄 왼쪽부터 최수용 감독·김빛누리·백성동·김경중·강현구·송오진·정석화·홍태곤·박창신·조진홍·권영호 선수·김성구 코치, 가운데 줄 왼쪽부터 김세원 코치·조현웅·안성준·박찬우·김래오·김태욱·임재현·김경연·배봉환·남기열·주정우 선수 그리고 아랫줄 왼쪽부터 위상혁·김의도·조주영·신광용·양호준·신승훈·전호준·곽태호·박수환 선수.

Advertisement for CBS and other media services. Includes text: 'RADIO',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060-600-1031', and 'STV'.